

본 논문은 아래의 저작권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정보 (Copyright Policy)

-학술지 발행기관

• 재사용 정보 (CC License)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셀프아카이빙 정보 (Author Self-Archiving)

-Gray : 검토 중 · 비공개 · 무응답 · 기타

• 원문 접근 정보 (Reader Rights)

-이용자 접근정책 : CCL 유형에 따른 재사용 가능

-무료 DB : KCI

남성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유형에 따른 상담의도, 심리적 불편감, 성역할 갈등의 차이*

양 서 영 홍 정 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유형을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하고, 각 집단 간 차이와 특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인 남성 292명을 대상으로 상담에 대한 의미변별 형용사 척도를 활용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양가태도 집단, 미태도 집단, 긍정태도 집단, 부정태도 집단이 도출되었다. 이후 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집단의 특성을 알아보고, 집단 간 상담의도, 심리적 불편감, 남성 성역할 갈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긍정태도 집단은 상담 의도, 상담 경험, 상담 고려 수준이 가장 높고, 심리적 불편감과 성역할 갈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가태도 집단과 부정태도 집단은 비슷한 수준의 심리적 불편감과 성역할 갈등을 보였지만, 양가태도 집단이 상담 의도와 불안, 남성 우월 경향이 더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미태도 집단은 상담의도와 심리적 불편감, 성역할 모두 높지 않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기초로 남성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도움추구태도, 상담의도, 심리적불편감, 성역할갈등, 남성의 도움추구

* 본 연구는 양서영(2023)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홍정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Tel: 031-219-3293, E-mail: day012@ajou.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사람들은 살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그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할 때 개인은 정신건강 전문가(상담전문가, 임상심리사, 정신과 의사 등)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심리적 고통이나 불편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Wampold, 2001). 그러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2024)에서 발표한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일반 성인 중 73.6%가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중 과반 이상이 일상과 업무, 학업, 사회 활동에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중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27%로 응답자 4명 중 3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심리적인 고통이 있음에도 도움추구를 하지 않는 것을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이라고 한다(Kushner & Sher, 1991). 심리적 고통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만성화되기 쉬우며 그로 인해 직업 기능의 손상, 사회생활에서의 장애, 삶의 질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에(서주현, 2011)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서비스 갭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비스 갭 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이 도움추구 행동을 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움추구란 개인이 심리적인 고통을 줄

이기 위해 타인에게 지지, 조언, 정보를 요청하는 대인적 의사소통 과정을 의미하며, 비공식적 자원과 공식적 자원으로 구분된다(Rickwood, Deane, Wilson & Ciarrochi, 2005). 비공식적 자원은 친구, 가족 등 비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며, 공식적 자원은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뜻하며 이를 전문적 도움추구라고 한다(김은아, 손혜련, 김은하, 2018). 전문적 도움추구는 도움추구 태도, 도움추구 의도(상담의도), 도움추구 행동으로 구분한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에 도움을 구하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 경향성을 의미한다(김주미, 유성경, 2002). 도움추구 의도는 심리적인 불편감을 경험하는 개인이 얼마나 도움추구 행동을 시도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도움추구 행동은 개인이 실제로 전문적 도움추구를 요청하는 행위이다(김은아 외, 2018).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동에는 평소 개인이 가지고 있던 태도가 영향을 미치기에(Vogel, Wade & Hackler, 2008)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의도, 행동 중 주로 태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개인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는 다양한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데(김주미, 유성경, 2002) Kushner와 Sher(1991)는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접근요인은 상담을 받을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성별, 자기개방, 상담에 대한 유용성 기대, 사회적 지지, 심리적 불편감 등이 있다(김주미, 유성경, 2002; 신연희, 안현의, 2005; 이지원, 남숙경, 2016; 장진이, 2001; 추세원, 최지영, 이영순, 2017). 이와 반대로 상담을 받을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회피요인이라고 한다. 회피요인에는 낙인,

상담에 대한 위협성 기대, 정서 표현 억제, 자기은폐, 성역할 갈등 등이 있다(박준호, 서영석, 2009; 신연희, 안현의, 2005; 안수정, 서영석, 2017; 이안나, 강영신, 2021; 이지원, 남숙경, 2016; 정진철, 양난미, 2010). 기존의 연구들은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을 각각의 개별적인 독립변인으로 보고 각 요인이 도움추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가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은 공존할 수 있으며, 두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함께 나타나는 양가태도와 동일한 상태가 된다(Ajzen, 2001). 태도 이론에서는 인간은 지속적으로 한 가지 태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는 일관성 이론이 지배적이었기에(이수원, 이영훈, 1989) 양가태도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나타났다. 개인 안에서 상반된 두 태도가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은 의사결정 유능성에 영향을 미쳐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능력을 저해한다는 것이 밝혀져 양가태도 연구의 중요성이 밝혀졌으며,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있어서도 양가태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측정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이미경, 김아름, 최성인, 남숙경, 이상민, 2010; 정아름, 2019; 황동진, 김사현, 2020).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자주 쓰이는 척도는 Fischer와 Turner(1970)가 개발한 ‘전문적인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 설문지(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TSPPH)’이다. 이 척도는 일관성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상담에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를 의미하는 호오도(좋고 싫음)만을 측정한다. 따라서 긍정태도와 부정태도가 공존하는 양가태도나 미태도 등 태도의 다양성을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다(이미경 외, 2010). 이에 이미경 등(2010)은 ‘상담에 대한 의미변별 형용사 척도’를 개발하여 양가태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상담에 대한 의미변별 형용사 척도’는 상담의 긍정태도(개방, 신뢰)와 부정태도(낙인, 불신)를 각각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개방, 신뢰, 낙인, 불신의 점수와 긍정태도 점수, 부정태도 점수, 호오도, 양가태도 점수를 모두 측정할 수 있다(이미경 외, 2010). 의미변별 형용사 척도가 개발된 이후, 연구는 다양한 태도를 가진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의 특성과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로 발전되었다(김하영, 연구진, 2021; 오태균, 김미경, 2013; 이미경, 이상민, 2013).

오태균과 김미경(2013)은 ‘상담에 대한 의미변별 형용사척도’를 이용해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 별로 자기개념, 공감 능력, 대인관계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하였다. 또한 이미경과 이상민(2013)은 집단 별로 상담태도, 상담의도, 상담이용에 대한 갈등량, 심리적 불편감의 차이를 보았다. 두 연구는 Rudolph(2005)의 방식을 사용하여 긍정태도와 부정태도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양가집단, 선호집단, 비선호집단, 무관심집단을 도출하였다. 긍정태도가 중간 값보다 높고, 부정태도도 중간 값보다 높으면 양가태도 집단, 긍정태도가 중간 값보다 높고, 부정태도가 중간 값보다 낮은 집단은 선호집단, 긍정태도가 중간 값보다 낮고, 부정태도가 중간 값보다 높으면 비선호집단, 긍정태도와 부정태도가 모두 중간 값보다 낮으면 무관심집단으로 분류한다(이미경, 2010). 그러나 이 방식은 연구자가 중간 값이라는 인위적인 기준을 선정하여 집단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하였다(김하영, 연구진, 2021; 이미경, 이상민, 2013). 또한 양가

태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반되는 두 태도의 힘의 크기가 유사하고, 일정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만족해야 하는데(황동진, 김사현, 2020) 양가집단보다 비선호집단이 오히려 긍정태도와 부정태도의 힘의 크기가 유사하여 양가적인 속성이 나타난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김하영과 연구진(2021)은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집단을 분류함으로써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군집분석은 유사한 집단들끼리 군집이 나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집단을 나누는 기준을 알 수 없을 경우에 적합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김하영, 2017; 장여주, 장여진, 2013). 군집분석 결과 선호집단, 긍정태도집단, 양가태도집단, 태도 미형성 집단이 도출되었으나(김하영, 연구진, 2021),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이 도출되지 않아 부정태도 집단의 특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최근 상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논의하면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정적 태도를 지닌 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 바 있다.

남성은 서비스 갭 현상이 두드러진 집단(조현주, 임현우, 조선진, 방명희, 2008)으로, 여러 선행연구(김은아 외, 2018; 신연희, 안현희, 2005; 유성경, 이동혁, 2000; 장진이, 2001)에서 여성에 비해 도움추구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개인적 성향에 따른 문제라기보다, 사회가 부여한 성역할 기대와 그로 인한 갈등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역할 갈등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역할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긴장, 억압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를 의미한다(안수정, 서영석, 2017; O'Neil, 1981). 여성주의 이

론에 따르면 전통적 남성성은 자율성, 정서적 억제, 독립성, 경쟁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규범은 남성이 취약함을 드러내거나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방해한다(Pleck, 1981; Connell, 1995). O'Neil(2008)이 제시한 성역할 갈등 이론에서는 남성이 전통적 남성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긴장과 불편감을 경험하며, 이는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Levant(1998)는 '규범적 남성 감정표현불능증(normative male alexithymia)'이라는 개념을 통해 남성이 감정을 인식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압받는 현상을 설명하였으며, Good, Dell과 Mintz(1989) 또한 남성들은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도움을 쉽게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합적인 위협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연구 결과를 보면, 성역할 기대를 저버리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에 비해 도움추구에 부정적 태도를 가지며(유성경, 이동혁, 2000; 이안나, 강영신, 2021; 정경미, 신희천, 2014), 성역할 갈등이 높은 남성은 부정적인 도움추구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지선, 2008; 안수정, 서영석, 2017; 정경미, 신희천, 2014; 제연화, 심은정, 2015). 그러나 모든 남성의 도움추구 태도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Pleck(1981)은 전통적 남성성 규범이 개인, 세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으며, Addis와 Mahalik(2003)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도움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남성 내에서도 도움 추구 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남성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확인하면서 양극적 평정척도인 '전문적 도움추

구태도척도(ATSPPH)'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도움추구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성역할 갈등이 높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양가태도 혹은 미태도 등 다양한 태도 집단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도움추구 태도를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라 성역할 갈등과 심리적 불편감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심리적 불편감이란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우울이나 불안, 절망감, 적대감, 대인관계 부적응과 같은 정서적 혹은 신체적인 반응을 말한다(위진아, 1999).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심리상태에 불편감을 느껴야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므로 전문적 도움추구를 연구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심리적 불편감의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가 발전되어 오면서 도움추구 태도만으로 도움추구 행동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상담 의도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긍정적인 도움추구 태도는 상담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신연희, 안현의, 2005; 안수정, 서영석, 2017; 유영란, 이지연, 2006). 또한 합리적 행동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태도는 의도에 영향을 미쳐 행동으로 이어진다(안수정, 서영석, 2017; Ajzen, Timko, & White, 1982).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도뿐만 아니라 의도를 변인으로 함께 설정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태도 집단의 상담의도는 어떠한지를 함께 확인해보려고 한다. 또한 집단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집단 별 연령 분포, 상담 경험 유무, 상담 고려 여부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상담에 대한 의미변별 형용사 척도'를 사용하여 남성의 도움추구

태도를 측정하였을 때 어떤 집단이 도출되는지를 보고, 집단의 차이와 특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집분석을 통해 집단을 분류하고, 집단 간에 상담의도, 심리적 불편감, 남성의 성역할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성의 다양한 도움 추구 태도와 성역할 갈등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고, 남성의 도움 추구 태도를 높일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상담에 대한 태도 집단을 분류할 경우 어떤 집단들이 도출되는가?

둘째, 집단에 따라 연령, 상담경험 유무, 상담고려 유무의 분포는 어떠한가?

셋째, 집단에 따라 상담의도, 심리적 불편감, 남성 성역할 갈등은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성인 남성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와 카카오톡에 연구의 목적과 유의사항, 설문 URL을 작성한 글을 게재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 8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설문을 모집하였고,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커피 쿠폰을 제공하였다. 총 303명의 설문을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들 중 모든 문항에 동일한 번호를 선택하거나 연구 대상에 부합하지 않은 성별(여성)로 응답한 11명의 설문을 제외하고, 총 292명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

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분포는 20대가 18.5%, 30대 25.0%, 40대 20.2%, 50대 25.0%, 60대 이상이 11.3%으로 비교적 다양한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실제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7.5%였고, 평소 상담을 받아볼 것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 참여자는 47.9%로 두 명 중 한 명꼴로 상담 이용을 고려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상담에 대한 의미변별 형용사 척도

상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미경 등(2010)이 개발한 ‘상담에 대한 의미변별 형용사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이며, 개방, 낙인, 신뢰, 불신 4개의 하위요인,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 문항의 평균을 구하면 각 하위요인 점수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개방, 신뢰 문항의 평균을 구하면 긍정태도 점수가 도출되고, 낙인, 불신 문항의 평균을 구하면 부정태도 점수를 구할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태도의 호오도 점수와 양가성 점수를 도출할 수 있다. 호오도는 긍정태도 문항의 합산에서 부정태도 문항의 합산을 빼서 계산하며 -3에서 3의 범위를 가진다. -3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3에 가까울수록 긍정태도를 의미한다. 양가성 점수는 Thompson와 Zanna, Griffin(1995)의 공식으로 계산하며 -0.5에서 4의 범위를 가진다. -0.5에 가까울수록 한쪽태도(긍정태도 혹은 부정태도)를 의미하며, 4에 가까울수록 양가태도를 의미한다(이미경 외, 2010). 이미경 등(2010)의 연구에서 전체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김하영과 연규진(2021)의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개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개방 .80, 낙인 .77, 신뢰 .86, 불신 .71이었고,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개방 .81, 낙인 .81, 신뢰 .83, 불신 .83이었다.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척도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집단의 전문적 도움추구태도가 어떠한지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하기 위해서 Fischer와 Farina(1995)가 개발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척도의 단축형 척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Short Form : ATSPPH-SF)를 김주미와 유성경(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이며, 상담에 대한 신뢰와 상담 필요성 인식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참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 사이에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김주미와 유성경(2002)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3으로 나타났다.

상담의도 척도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Cash와 Begley와 McCown, Weise(1975)가 개발하고 신연희와 안현의(2005)가 번안한 상담의도 목록 척도(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Inventory: ISCI)척도를 사용하였다. 신연희와 안현의(2005)가 번안한 ISCI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되어 부모님과 의 갈등문항, 진로선택문항, 시험불안문항, 교우관계문항, 학업문제 문항이 포함되어 추후 연구들에서 해당 문항을 연구

대상에 적합하게 수정하거나 새롭게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성인 남성에 적합하게 부모님과 의 갈등문항은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문항으로 수정하였고, 진로선택문항은 진로문제문항으로 수정하였고, 시험 불안문항은 불안문항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교우관계문제문항과 학업문제문항은 삭제하였다. 총 14문항으로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참여자들은 ‘절대 안간다(=1)’부터 ‘확실히 간다(=4)’ 사이에서 본인이 상담에 가고 싶은 정도를 체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추구 의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신연희와 안현의(2005)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심리적 불편감 척도

심리적 불편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Derogatis와 Cleary(1977)가 개발하고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우리나라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간이진단검사(SCL-90-R)를 사용하였다. 김주미와 유성경(2002)의 연구에서는 이 중 예측력이 높았던 ‘대인민감성(9문항)’, ‘우울(13문항)’, ‘불안(10문항)’ 세 가지 문제만을 사용하였고, 세 가지 증상차원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성인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문제로, 본 연구에서도 원문의 9개의 증상 차원 중에서 세 가지 증상차원만을 사용하였다. 총 32문항이며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참여자들은 ‘전혀 없다(=1)’와 ‘아주 심하다(=5)’ 사이에서 응답한다. 점수의 총점이 높을수록 심리적 불편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한다. 김주미와 유성경(2002)의 연구에서 전체신뢰도 계수는(Cronbach's α)는 .97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6, 각 하위요인은 대인민감성 .89, 우울 .92, 불안 .91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성역할 갈등 척도

남성의 성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2012)이 개발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7문항이며, ‘남성우월’, ‘일과 가족 간의 갈등’, ‘정서 표현 억제’, ‘성공/권력/경쟁’,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가장의무감’의 6가지 하위요인을 가진다. 6점 리커트식 척도로 참여자들은 ‘전혀 아니다(=1)’와 ‘매우 그렇다(=6)’의 사이에서 응답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성역할 갈등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연화와 심은정(2015)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9였으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남성우월 .85, 일과 가족 간의 갈등 .76, 정서 표현 억제 .79, 성공/권력/경쟁 .78,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74, 가장의무감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신뢰도 .94, 남성우월 .90, 일과 가족 간의 갈등 .82, 정서표현 억제 .80, 성공/권력/경쟁 .80,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82, 가장의무감 .75으로 나타났다.

분석절차

수집된 자료는 SPSS Ver.29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상담태도 집단을 나누기 위해 ‘상담에 대한 의미변별 형용사척도’를 사용하여 하위요인인 개방, 신뢰, 낙인, 불신의 점수의 평균을 각각 산출한 후 2단계 군집분석으로 집단을 나누었다. 1 단계에서 Wards의 방법으로 초기 중심점을 탐색 후 2단계에서 K-means의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군집을 나누었다. 셋째, 집단 별 개방,

낙인, 신뢰, 불신요인, 상담태도(ATSPPH), 양가 태도 점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자세히 보기 위해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집단 별로 연령대와 상담을 받은 경험, 상담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집단 별 상담의도, 심리적 불편감, 남성의 성역할 갈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자세히 보기 위해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고, 상관 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의미변별 허용사 척도의 하위요인(개방, 낙인, 불신, 신뢰)은 서로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보였고, 긍정태도 요인인 개방, 신뢰와 부정태도 요인인 낙인, 불신은 서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

상담에 대한 의미변별 허용사 척도의 하위요인인 개방, 낙인, 신뢰, 불신 요인을 바탕으로 상담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인하고자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대상의 특성을 분석하고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대상끼리 동일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의 상이한 변화유형을 보여주는 방법이다(심주원, 정진선, 2018).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s의 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분석을 사용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군집분석을 사용하면 예외적이어서 이탈의 정도가 큰 사례가 군집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천영미, 우성범, 김한주, 강충명, 양은주, 2009).

먼저 군집의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 개방, 낙인, 신뢰, 불신요인을 모두 표준화 점수인 Z

표 1. 기술통계

(N=292)

	점수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개방	1~4	1.00	4.00	2.35	0.65
낙인	1~4	1.00	3.75	2.02	0.60
신뢰	1~4	1.00	4.00	2.60	0.61
불신	1~4	1.00	3.50	1.73	0.61
상담태도	1~4	1.70	4.00	2.69	0.38
상담의도	1~4	1.00	4.00	2.41	0.51
심리적 불편감	1~5	1.03	4.22	2.10	0.68
남성 성역할갈등	1~6	1.27	5.27	3.31	0.73

주. 상담태도 :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ATSPPH)

표 2. 연구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개방	1							
2	낙인	-.36***	1						
3	신뢰	.65***	-.38***	1					
4	불신	-.19**	.69***	-.38***	1				
5	상담태도	.48***	-.48***	.59***	-.46***	1			
6	상담의도	.30***	-.09	.37***	-.13*	.49***	1		
7	심리적 불편감	-.17**	.48***	-.16**	.40***	-.32***	.12*	1	
8	남성 성역할갈등	-.28***	.43***	-.20***	.33***	-.25***	.09	.50***	1

주. * $p < .05$, ** $p < .01$, *** $p < .001$, 상담태도 :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ATSPPH)

점수로 변환한 후 Wards의 방법으로 초기 중심점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4개 혹은 5개의 군집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제시되었고, 군집의 수를 4개와 5개 단계별로 투입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여 군집을 비교해본 결과 군집수를 4개로 지정하였을 때 군집 간의 차별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담태도 집단을 4개로 구분하였던 선행연구들(오태균, 김미경, 2013; 이미경, 이상민, 2013; 김하영, 연구진, 2021)과의 비교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군집의 수를 4개로 결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군집 수를 4로 하여 K-means의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군집을 나누었다.

군집분석 결과 군집 1은 50명, 군집 2는

115명, 군집 3은 77명, 군집 4는 50명으로 분류되었다. 군집의 최종 중심 값은 표 3에 제시하였고 각 군집의 특성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군집 1은 개방, 신뢰가 군집 중 두 번째로 높고, 낙인, 불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개방 $M=0.51$; 신뢰 $M=0.02$; 낙인 $M=1.01$; 불신 $M=1.41$), 군집 2는 개방, 낙인, 신뢰, 불신이 모두 세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개방 $M=-0.32$; 신뢰 $M=-0.39$; 낙인 $M=-0.19$; 불신 $M=-0.16$). 군집 3은 개방, 신뢰가 가장 높고 낙인, 불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개방 $M=1.01$; 신뢰 $M=1.11$; 낙인 $M=-1.01$; 불신 $M=-0.99$). 군집 4는 개방, 신뢰가 가장 낮고 낙인, 불신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개방 $M=-1.32$; 신뢰

표 3. 군집분석의 최종 중심 값

(N=292)

	군집1(n=50)	군집2(n=115)	군집3(n=77)	군집4(n=50)
개방	0.51	-0.32	1.01	-1.32
낙인	1.01	-0.19	-1.01	0.97
신뢰	0.02	-0.39	1.11	-0.82
불신	1.41	-0.16	-0.99	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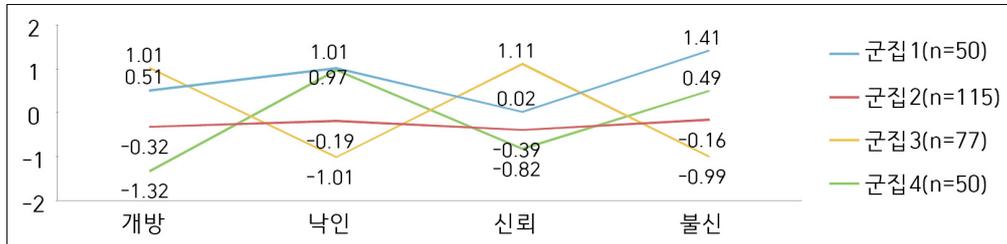


그림 1. 군집분석 결과

M=-0.82; 낙인 M=0.97; 불신 M=0.49).

의미변별 형용사척도의 하위요인인 개방, 낙인, 신뢰, 불신 요인에 따라 군집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후 Scheffé 검정으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개방요인은 군집 3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군집 1, 군집 2, 군집 4순이었다. 낙인요인에서는 군집 1과 군집 4가 서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가장 높았고, 군집 2, 군집 3순이었다. 신뢰요인에서는 군집 3이 가장 높았으며 군집 1, 군집 2 순이었고, 군집 4가 가장 낮았다. 불신요인에서는 군집 1이 가장 높았고, 군집 4, 군집 2, 군집 3순이었다.

표 3의 최종 중심값과 표 4의 차이 검증의 결과 드러난 군집의 특성을 보면 군집 1은 상담에 대한 긍정태도 요인인 개방, 신뢰가 두 번째로 높고, 부정태도 요인인 낙인, 불신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긍정태도와 부정태도가 모두 높은 양가태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개방, 낙인, 신뢰, 불신이 모두 세 번째로 낮으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태도가 낮은 집단으로 한 대상에 대해서 긍정태도도 부정태도도 존재하지 않는 미태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긍정태도 요인인 개방과 신뢰가 군집 중 가장 높고, 부정태도 요인인 낙인, 불신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긍정태도가

높고 부정태도가 낮은 긍정태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긍정태도 요인인 개방, 신뢰가 가장 낮고 부정태도 요인이 두 번째로 높은 집단으로, 긍정태도가 낮고 부정태도가 높은 부정태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4에서 상담태도(ATSPPH)의 군집별 차이를 보면 긍정태도 집단이 가장 높고, 부정태도 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미태도 집단과 양가태도 집단은 중간으로 서로 유의미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반면 의미변별 형용사척도를 Thompson 등(1995)의 공식으로 계산한 양가태도에서는 양가태도 집단이 가장 높았고, 부정태도 집단과 미태도 집단이 두 번째로 높고 긍정태도 집단이 가장 낮았다. 양가태도 집단과 미태도 집단이 상담태도(ATSPPH)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양가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각 집단이 명확히 구분되는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교차분석

군집별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상담경험 유무, 상담고려 유무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연령분포와 상담경험 유무, 상담고려 유무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연령대 $\chi^2 = 42.73, p < .001$; 상담경험유무

표 4. 분산분석을 통한 군집 간 하위척도의 차이검증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df)	P	MSE	η^2	사후검증
개방	1	50	2.68	0.34	185.39 (3,288)***	.000	.144	.659	3>1>2>4
	2	115	2.14	0.31					
	3	77	3.00	0.50					
	4	50	1.49	0.35					
낙인	1	50	2.63	0.35	161.91 (3,288)***	.000	.137	.628	1,4>2>3
	2	115	1.90	0.30					
	3	77	1.40	0.42					
	4	50	2.61	0.44					
신뢰	1	50	2.62	0.41	99.07 (3,288)***	.000	.184	.508	3>1>2>4
	2	115	2.36	0.40					
	3	77	3.28	0.45					
	4	50	2.10	0.47					
불신	1	50	2.60	0.41	181.80 (3,288)***	.000	.130	.654	1>4>2>3
	2	115	1.64	0.35					
	3	77	1.13	0.27					
	4	50	2.04	0.44					
상담 태도	1	50	2.61	0.25	49.29 (3,288)***	.000	.099	.339	3>2,1>4
	2	115	2.66	0.30					
	3	77	3.02	0.35					
	4	50	2.35	0.34					
양가 태도	1	50	2.39	0.32	248.06 (3,288)**	.000	.186	.721	1>4,2>3
	2	115	1.53	0.40					
	3	77	0.34	0.46					
	4	50	1.53	0.54					

주. 사후검증은 Scheffé 검증을 사용하였다. 상담태도 :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ATSPPH), 양가태도 점수 : {(개방+신뢰)/2+(낙인+불신)/2}-[(개방+신뢰)/2-(낙인+불신)/2], * p <.05, ** p <.01, *** p <.001

$\chi^2 = 9.68, p < .05$; 상담고려유무 $\chi^2 = 22.03, p < .001$. 양가태도 집단은 30대(34.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태도 집단과 긍정태도 집단은 40대(30.4%)와 50대(36.4%)가 높았고, 부

표 5. 군집의 구성표본 특징

	양가태도 집단 (n=50)	미태도 집단 (n=115)	긍정태도 집단 (n=77)	부정태도 집단 (n=50)	
연령대	20대 (26.0%)	13명 (26.0%)	15명 (13.0%)	7명 (9.1%)	19명 (38.0%)
	30대 (34.0%)	17명 (34.0%)	22명 (19.1%)	24명 (31.2%)	10명 (20.0%)
	40대 (14.0%)	7명 (14.0%)	35명 (30.4%)	9명 (11.7%)	8명 (16.0%)
	50대 (18.0%)	9명 (18.0%)	25명 (21.7%)	28명 (36.4%)	11명 (22.0%)
	60대 이상 (8.0%)	4명 (8.0%)	18명 (15.7%)	9명 (11.7%)	2명 (4.0%)
χ^2	42.73***				
상담경험 유무	있음 (12.0%)	6명 (12.0%)	6명 (5.2%)	10명 (13.0%)	0명 (0.0%)
	없음 (88.0%)	44명 (88.0%)	109명 (94.8%)	67명 (87.0%)	50명 (100.0%)
χ^2	9.68*				
상담고려 유무	있음 (60.0%)	30명 (60.0%)	52명 (45.2%)	47명 (61.0%)	11명 (22.0%)
	없음 (40.0%)	20명 (40.0%)	63명 (54.8%)	30명 (39.0%)	39명 (78.0%)
χ^2	22.03***				

* $p < .05$, ** $p < .01$, *** $p < .001$

정태도 집단은 20대(38.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담경험에 대해 양가태도 집단, 긍정태도 집단은 12%, 13%의 비율로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미태도 집단은 5.2%였고, 부정태도 집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상담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양가태도 집단은 60%의 비율로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미태도 집단은 45.2%, 긍정태도 집단은

61%, 부정태도 집단은 22%의 비율로 상담을 고려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검증

집단 간 상담의도와 심리적 불편감, 남성 성역할 갈등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

시하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별로 상담의도, 심리적 불편감, 남성 성역할 갈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담의도 $F=9.45, p=.000$; 심리적 불편감 $F=24.60, p=.000$; 남성 성역할 갈등 $F=16.31, p=.000$). 사후검증 결과, 상담의도에서 양가태도 집단이 부정태도 집단에 비해 상담을 받으려는 의도가 높았고, 긍정태도 집단은 미태도 집단, 부정태도 집단에 비해 상담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불편감은 양가태도 집단과 부정태도 집단이 가장 높았고, 미태도 집단, 긍정태도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불편감의 하위요인은 대인민감성($F=21.82, p=.000$)과 우울($F=23.69, p=.000$), 불안($F=21.63, p=.000$)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대인민감성, 우울에서 양가태도 집단과 부정태도 집단이 미태도 집단, 긍정태도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

표 6. 분산분석을 통한 군집 간 연구변인의 차이 검증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df)	P	MSE	η^2	사후검증
상담 의도	1	50	2.54	0.36	9.45 (3,288)***	.000	.246	.090	1>4
	2	115	2.32	0.47					3>2
	3	77	2.60	0.60					3>4
	4	50	2.19	0.51					
심리적 불편감	1	50	2.62	0.71	24.60 (3,288)***	.000	.376	.204	1,4>2>3
	2	115	2.00	0.56					
	3	77	1.74	0.61					
	4	50	2.35	0.63					
대인 민감성	1	50	2.70	0.76	21.82 (3,288)***	.000	.445	.185	1,4>2>3
	2	115	2.16	0.63					
	3	77	1.81	0.65					
	4	50	2.51	0.69					
우울	1	50	2.63	0.72	23.69 (3,288)***	.000	.401	.198	1,4>2,3
	2	115	2.02	0.56					
	3	77	1.76	0.65					
	4	50	2.42	0.67					
불안	1	50	2.52	0.76	21.63 (3,288)***	.000	.415	.184	1>4>3 1>2
	2	115	1.82	0.58					
	3	77	1.64	0.63					
	4	50	2.12	0.69					

표 6. 분산분석을 통한 군집 간 연구변인의 차이 검증 (계속)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df)	P	MSE	η^2	사후검증
남성 성역할 갈등	1	50	3.53	0.57	16.31 (3,288)***	.000	.461	.145	4,1,2>3
	2	115	3.34	0.60					
	3	77	2.88	0.75					
	4	50	3.66	0.82					
남성 우월	1	50	3.39	0.77	13.38 (3,288)***	.000	.917	.122	1>2>3 4>3
	2	115	2.87	0.90					
	3	77	2.36	1.03					
	4	50	3.12	1.12					
일과 가족 간 갈등	1	50	3.55	0.76	9.18 (3,288)***	.000	.745	.087	4>2 4>3 1>3
	2	115	3.32	0.77					
	3	77	3.03	0.94					
	4	50	3.81	1.00					
정서표현 억제	1	50	3.55	0.70	19.68 (3,288)***	.000	.563	.170	4>2>3 1>3
	2	115	3.49	0.69					
	3	77	2.91	0.83					
	4	50	3.90	0.80					
성공/ 권력/ 경쟁	1	50	3.62	0.65	5.72 (3,288)***	.000	.579	.057	4>3 2>3
	2	115	3.66	0.70					
	3	77	3.34	0.83					
	4	50	3.90	0.88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1	50	3.37	0.82	19.41 (3,288)***	.000	.818	.168	1,4,2>3
	2	115	3.02	0.83					
	3	77	2.30	0.96					
	4	50	3.30	1.06					
가장 의무감	1	50	3.83	0.99	2.66 (3,288)*	.049	1.037	.027	n/a
	2	115	4.00	0.86					
	3	77	3.68	1.22					
	4	50	4.15	1.04					

주. 집단1:양가태도집단, 집단2:미태도집단, 집단3:긍정태도집단, 집단4:부정태도집단.

* $p < .05$, ** $p < .01$, *** $p < .001$

안은 양가태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성역할 갈등은 부정태도 집단, 양가태도 집단, 미태도 집단이 긍정태도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남성우월, 일과 가족 간의 갈등, 정서표현 억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에서 양가태도 집단, 부정태도 집단이 긍정태도 집단, 미태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우월에서는 양가태도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성공/권력/경쟁에서는 부정태도 집단과 미태도 집단이 긍정태도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가장의무감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지만($F=2.66, p=.049$)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집단을 분류할 경우 어떤 집단이 도출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집단에 따라 연령, 상담경험 유무, 상담고려 유무의 분포를 알아보고, 상담의도, 심리적 불편감, 남성 성역할 갈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미변별 형용사 척도의 하위요인인 개방, 낙인, 신뢰, 불신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긍정태도인 개방, 신뢰 요인은 부정태도인 낙인, 불신 요인과 서로 부적상관을 보여 상담에 대해 긍정태도를 지닌 사람은 부정태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긍정

태도(개방, 신뢰)는 상담의도와 정적상관을 보이고, 부정태도(불신, 낙인)와는 상관이 없거나 상관이 낮아 상담의도는 긍정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불편감, 성역할 갈등은 긍정태도 요인과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반면, 부정태도 요인과는 정적상관을 보이며 긍정태도 요인의 상관계수보다 높아 심리적 불편감과 성역할 갈등은 부정태도 요인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긍정태도 요인과 부정태도 요인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변인이며 각각 다르게 기능할 수 있고, 긍정태도와 부정태도가 동시에 공존하는 양가태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가태도 집단, 미태도 집단, 긍정태도 집단, 부정태도 집단이 도출되었다. 군집 1은 긍정태도(개방, 신뢰)가 집단 중 두 번째로 높고, 부정태도(낙인, 불신)가 가장 높아 긍정태도와 부정태도가 동시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가태도 점수가 집단 중 가장 높아 ‘양가태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양가태도 집단은 상담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상담사의 전문성을 신뢰하지만 이와 동시에 상담을 받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기며 상담의 효과를 불신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군집 2는 긍정태도(개방, 신뢰)와 부정태도(낙인, 불신)가 모두 세 번째로 낮기에, 아무런 태도도 가지지 않는 ‘미태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긍정태도(개방, 신뢰)가 집단 중에서 가장 높고, 부정태도(낙인, 불신)가 가장 낮아 뚜렷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 ‘긍정태도 집단’으로 명명

하였다. 긍정태도 집단은 상담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유용한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군집 4는 긍정태도(개방, 신뢰)가 가장 낮고 부정태도 요인(낙인, 불신)이 두 번째로 높았다. 군집 1에 비해 긍정태도가 낮고 부정태도가 높기에 군집 4를 '부정태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부정태도 집단은 상담을 받는 것은 나약하고 부끄러운 것이며 상담이 문제 해결에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구심을 품을 가능성이 높다.

도출된 네 개 집단이 상담태도, 양가태도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양가태도 집단과 미태도 집단은 기존의 상담태도를 측정하는 도구(ATSPPH)로는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유사한 집단으로 보일 수 있으나, 상담에 대한 의미별 행동사 척도를 활용한 양가태도 점수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서로 구분되는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태도 척도로는 양가태도와 미태도를 구분할 수 없다는 선행연구(김하영, 연구진, 2021; 이미경, 이상민, 2013)와 동일한 결과로 도움추구 태도를 측정할 때에는 태도의 다차원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또한 양가태도 집단의 양가태도 점수가 미태도 집단보다 높아 양가태도 집단이 상담을 더 갈등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한편, 긍정태도 집단은 상담태도에서 가장 높은 상담태도를 보였고, 집단 중 가장 낮은 양가태도 점수를 가지고 있어 상담을 요청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긍정적인 집단임이 드러났다. 부정태도 집단은 선행연구(김하영, 연구진, 2021)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던

집단으로, 상담태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신연희, 안현의, 2005; 유성경, 이동혁, 2000)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는 실제로 남성들에게 부정태도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부정태도 집단은 상담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고, 양가태도 점수는 양가태도 집단보다는 낮고, 긍정태도 집단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연령, 상담경험, 상담고려, 상담의도, 심리적 불편감, 성역할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부정태도 집단은 2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양가태도 집단은 절반이상이 2,30대의 젊은 연령대였다. 미태도 집단은 4,5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긍정태도 집단은 5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2,30대의 청년층이 상담태도가 부정적이거나 양가적이고, 50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는 중년층 남성들이 성역할 규범을 더 강고하게 내면화하기에 상담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연구 결과는 오히려 중년층에서 상담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년층 남성들이 그동안 겪어온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을 약점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돌봄의 한 방식이나 현실적 자원으로 수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청년 남성들이 상담 태도에서 부정적·양가적 양상이 나타난 것은 전통적 남성성 규범과 새로운 규범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래의 사회적 낙인 또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기효능감과 독

립성을 강조하는 시기이기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상담 수용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Addis, 2008). 실제로 다양한 선행연구(김은아 외, 2018; 유성경, 이동혁, 2000; 조현주 외, 2008)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상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상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양가태도 집단은 12%, 긍정태도 집단은 13%로 응답하였고, 평소 상담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양가태도 집단은 60%, 긍정태도 집단은 61%로 응답해 양가태도 집단과 긍정태도 집단은 상담경험 및 상담고려 유무에서 유사하게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상담의도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양가태도 집단과 긍정태도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양가태도 집단은 긍정태도 집단만큼 상담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심리적 불편감, 성역할 갈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양가태도 집단과 부정태도 집단은 심리적 불편감과 성역할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태도 집단은 심리적 불편감과 성역할 갈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태도 집단의 경우, 심리적 불편감은 양가태도 집단, 부정태도 집단에 비해 낮았지만 긍정태도 집단보다는 높았으며, 성역할 갈등은 양가태도 집단, 부정태도 집단과 유사하며 긍정태도 집단보다는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각 집단의 특성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긍정태도 집단은 상담고려 및 상담의도가 높으며 심리적 불편감과 성역할 갈등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심리적 불편감이 높지 않으나 불편감이 초래되었을 시 언제든지 도움을 추구할 수 있는

집단이다. 양가태도 집단은 상담고려 및 상담의도가 높았으며, 심리적 불편감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민감성과 우울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불안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갈등도 높았으며 특히 남성우월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 보였다. 이는 양가태도 집단이 심리적 불편감으로 인해 상담을 고려하게 되지만 남성우월 경향으로 인해 상담을 꺼리는 접근·회피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남성우월 경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강하며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가 반영된 요인이다(이수연 외, 2012; 정미경, 김동원, 2021). 남성우월 경향성이 높으면 항상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 상담에서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양가태도 집단은 심리적 불편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고민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양가태도 집단의 상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가집단이 가진 남성우월경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부정태도 집단은 양가태도 집단과 비슷한 수준의 심리적 불편감과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지만 상담의도에서는 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양가태도 집단은 심리적 불편과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면서 상담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부정태도 집단은 심리적 불편감과 성역할 갈등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에 갈 의도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집단의 차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가태도 집단은 부정태도 집단에 비해 심리적 불편감의 하위요인 중 특히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불안은 대인관계 및 수행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설보경, 김희경,

2018) 전문적 도움추구를 할 가능성을 높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태도 집단은 성역할 갈등이 양가태도 집단, 부정태도 집단과 유사하지만 심리적 불편감이 낮으며, 상담고려 및 의도가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지 않아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상담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성을 대상으로 도움추구 태도 유형을 분류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도움 추구 태도의 다차원성을 반영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특히 이전의 선행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부정태도 집단을 도출함으로써, 각 집단의 특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부정태도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상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남성 중에서는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받는 것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정태도 집단은 높은 심리적 불편감과 성역할 갈등을 가지고 있지만 상담 의도는 낮은 집단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는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담에 대한 낙인과 불신이 높고, 개방과 신뢰가 낮아 상담을 받는 것은 나약하고 부끄러운 것이며, 현재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담이 믿을 만하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양가태도 집단은 상담을 필요로 하면서도 성역할 갈등 및 남성우월경향이 높아

상담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을 내재화한 결과일 수 있기에,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성역할에 따른 불평등한 기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하여 ‘약하고 부끄러움’이 아닌 ‘적응적 자기 돌봄’으로 재정의함으로써, 낙인을 감소시키고 상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인의 긍정적인 상담경험을 자주 접하는 것 또한 낙인을 감소시켜 상담서비스 이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주홍화, 2019). 상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노출 역시 낙인을 감소시키고 상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박지혜, 2020). 따라서 상담에 대한 정보와 상담경험을 자주 노출시키는 것은 상담이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개입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혹은 양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고려하여 2,30대 남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서로의 상담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고, 상담의 과정, 상담사의 전문성, 비용 등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주홍화, 2019)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전통적 남성성 규범과 새로운 규범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상담을 받는 것이 의존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한 형태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성역할에 따른 불평등한 기대를 완화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성평등한 사회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태도 집단과 양가태도 집단의 차이

를 밝혔지만 두 집단의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부정태도 집단과 양가태도 집단은 비슷한 수준의 심리적 불편감과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지만 상담의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집단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양가태도 집단이 가진 불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확히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상담의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과 함께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발달적 변화에서 기인한 것인지, 특정 세대가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 및 코호트 비교 연구등을 통해 연령 효과와 세대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남성의 도움추구 태도를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했으나, 연애·결혼 여부나 집단 내 동료 지지망과 같은 관계적 변인을 포함하지 못했다. 남성들이 배우자나 연인, 혹은 남성 집단 내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도움 추구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관계 맥락을 반영하여 도움 추구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현대 사회에서 경쟁, 성취, 자율성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들 역시 도움추구와 관련하여 남성과 유사한 태도나 경험을 보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 간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남성과 여성의 도움 추

구 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검증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국립정신건강센터.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 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출판사.
- 김은아, 손혜련, 김은하 (2018). 상담에서 전문적 도움추구의 선행요인에 대한 고찰. 상담학연구, 19(1), 87-110.
- 김주미, 유성경 (2002).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91-1002.
- 김하영 (2017).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군집 탐색 연구 : 자기은폐, 체면손상, 심리적 불편감, 상담 관련 경험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하영, 연규진 (2021). 군집 분석을 통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탐색: 양가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623-1649.
- 박준호, 서영석 (2009). 남자 대학생들의 성역할갈등과 상담 의도와와의 관계: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상담에 대한 태도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5-48.
- 박지선 (2008). 애착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지혜 (2020). 청년의 정신건강 리터러시와 도움요청 행동: 도움요청에 관한 낙인, 태

- 도, 의도의 매개효과 분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주현 (2011). 우울증 환자의 적극적인 진료가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설보경, 김희경 (2018). 대학생의 거절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2), 305-326.
- 신연희, 안현의 (2005).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77-195.
- 심주원, 정진선 (2018). 군집분석을 활용한 청소년의 자기가치수반성 유형분류와 영향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9(5), 297-315.
- 안수정, 서영석 (2017). 중년 남성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관한 연구: 성역할 갈등, 자기낙인, 상담 태도, 상담 의도 간 관계에서 중년의 위기감과 상담 친화적 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629-657.
- 오태균, 김미경 (2013). 신학대학원생들의 상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39, 241-279.
- 유성경, 이동혁 (2000). 상담연구의 주제 및 연구 대상 분석 : 학위논문 및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8(1), 37-58.
- 유영란, 이지연 (2006).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441-460.
- 이미경 (2010). 상담에 대한 양가태도집단의 특성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 김아름, 최성인, 남숙경, 이상민 (2010). 상담에 대한 양가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1(2), 465-483.
- 이미경, 이상민 (2013). 상담에 대한 양가태도 집단의 특성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1(1), 189-210.
-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 (201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여성연구, 82(1), 5-33.
- 이수원, 이영훈 (1989). 태도의 면역기제: 양극성에서 이원성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8(1), 67-87.
- 이안나, 강영신 (2021).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22(5), 107-135.
- 이지원, 남숙경 (2016). 성별에 따른 정서표현 양가성이 전문적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방과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교육방법연구, 28(4), 721-741.
- 위진아 (1999). 남성 실직자의 심리적 불편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여주, 장여진 (2013). 대학생의 연인관계 유형에 따른 군집분석과 남녀비교. 상담학연구, 14(5), 2925-2943.
- 장진이 (2001). 자기 은폐(self-concealment)와 정서 표현 성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도움 추구 태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미, 신희천 (2014).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자기공개기대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2), 79-98.
- 정미경, 김동원 (2021). 소방공무원의 남성성역할갈등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과 세계,

- 45(1), 169-201.
- 정아름 (2019). 태도 양가성과 의사결정 유능성의 관계: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철, 양난미 (2010). 낙인과 자존감,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31-652.
- 제연화, 심은정 (2015). 2/30대 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31-952.
- 조현주, 임현우, 조선진, 방명희. (2008). 성인 남녀의 우울감 특징과 전문적 도움추구에 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83-297.
- 주홍화 (2019). 심리 상담 서비스에 대한 묘사가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영미, 우성범, 김한주, 강충명, 양은주 (2009). 아동의 대인관계 군집유형과 부모요인간 관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 103-122.
- 추세원, 최지영, 이영순 (2017). 중년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심리적 불편감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4(2), 381-396.
- 황동진, 김사현 (2020). 한국인의 성역할 태도 양가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32(2), 77-105.
- Addis, M. E. (2008). Gender and depression in men.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5(3), 153-168.
- Addis, M. E., & Mahalik, J. R. (2003). Men, masculinity, and the contexts of help seeking. *American Psychologist*, 58(1), 5-14.
- Ajzen, I. (2001). Nature and operation of attitud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27-58.
- Ajzen, I., Timko, C., & White, J. B. (1982). Self-monitoring and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3), 426-435.
- Cash, T. F., Begley, P. J., McCown, D. A., & Weise, B. C. (1975). When counselors are heard but not seen: Initial impa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4), 273-279.
- Connell, R. W. (1995). *Masculinit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rogatis, L. R., & Cleary, P. A. (1977). Confirmation of the dimensional structure of the SCL-90: A study in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4), 981-989.
- Fischer, E. H., & Farina, A. (1995).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 shortened form and consideration for research.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6(4), 368-373.
- Fischer, E. H., & Turner, J. I. (1970). Orientations to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y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1), 79-90.
- Good, G. E., Dell, D. M., & Mintz, L. B. (1989). Male role and gender role conflict: Relations to help seeking in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3), 295-300.
- Kushner, M. G., & Sher, K. J. (1991). The relations of treatment fearfulness and psychological service utilization: An overview.

-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2(3), 196-203.
- Levant, R. F. (1998). Desperately seeking language: Understanding, assessing and treating normative male alexithymia. In W. Pollack & R. F. Levant (Eds.), *New psychotherapy for men*, (pp. 35-56). John Wiley & Sons.
- O'Neil, J. M. (1981). Male sex role conflict, sexism, and masculinity: Psychological implications for men, women, and the counseling psychologis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9(2), 61-80.
- O'Neil, J. M. (2008). Summarizing 25 years of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using 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New research paradigms and clinical implic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3), 358-445.
- Pleck, J. H. (1981). *The myth of masculinity*. MIT Press.
- Rickwood, D., Deane, F. P., Wilson, C. J., & Ciarrochi, J. (2005). Young people's help-seeking for mental health problems. *Australian e-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Mental Health*, 4(3), 218-251.
- Rudolph, T. J. (2005). Group attachment and the reduction of value-driven ambivalence. *Political Psychology*, 26(6), 905-928.
- Thompson, M. M., Zanna, M. P., & Griffin, D. W. (1995). Let's not be indifferent about (attitudinal) ambivalence. In R. E. Petty & J. A. Krosnick (Eds.), *Attitude streng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pp. 361-386).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Vogel, D. L., Wade, N. G., & Hackler, A. H. (2008). Emotional expression and the decision to seek therapy: The mediating roles of the anticipated benefits and risk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3), 254-278.
- Wampold, B. E. (2001). *The great psychotherapy debate: Models, methods, and feeling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차원고접수 : 2025. 08. 05.

심사통과접수 : 2025. 08. 30.

최종원고접수 : 2025. 09. 30.

Group Differences in Help-seeking intenti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Gender Role Conflict Based on Help-Seeking Attitudes in Men

Seo-Young Yang

Jung-Soon Hong

Ajou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d adult men's attitudes toward professional help-seeking using cluster analysis and examined group differences among the identified subtypes. A total of 292 men completed a semantic differential scale, and four clusters were identified: ambivalent, unformed attitude, positive, and negative. One-way ANOVA and chi-square tests revealed differences in help-seeking intenti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gender role conflict. The positive group reported the highest help-seeking intention, counseling experience, and consideration of seeking help, with the lowest distress and conflict. The ambivalent and negative groups both showed elevated distress and conflict, but the ambivalent group reported higher help-seeking intention, anxiety, and stronger male superiority beliefs. The unformed group showed generally low levels across all variabl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value of identifying attitudinal subtypes to promote counseling service use among men. This study contributes by identifying the negative group—previously unaddressed—and clar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mbivalent group.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help-seeking attitude, help-seeking intention, psychological distress, gender role conflict, men's help-seeking attitude*